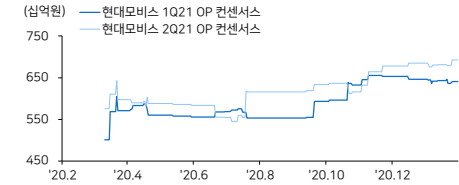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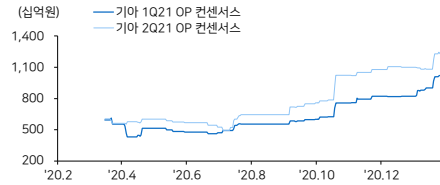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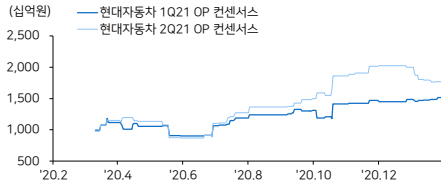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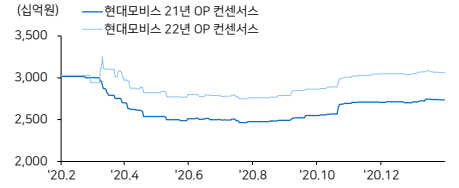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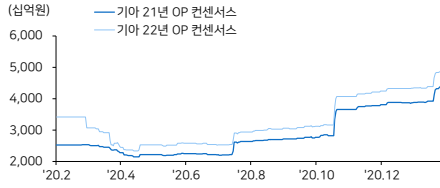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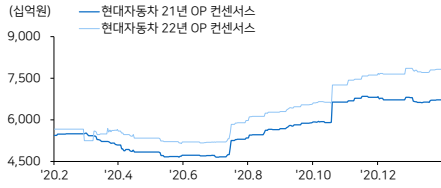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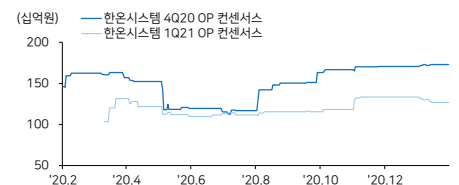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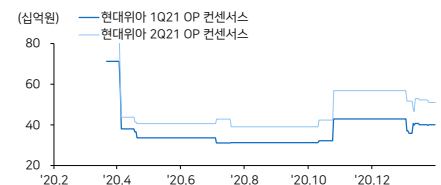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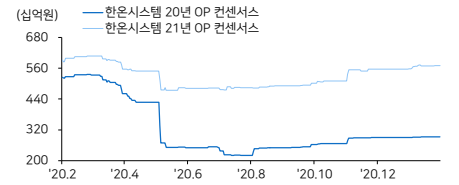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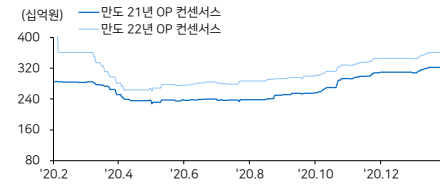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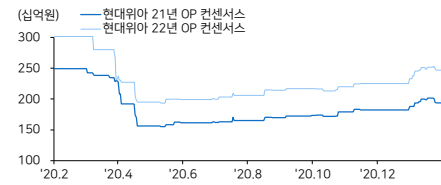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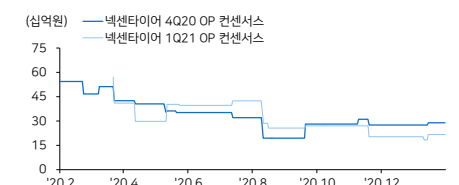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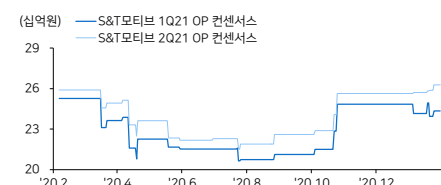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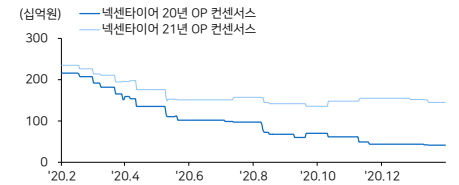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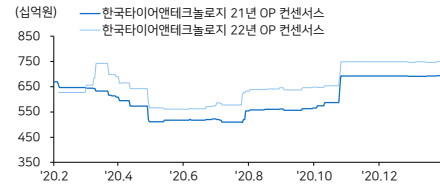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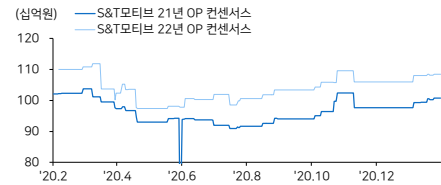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와 불발 애플가 'B' 낮산도 협상결렬...브랜더이전' (국민일보)

애플과 현대차의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간 접촉은 짧았고, 논의가 고위 경영진 수준까지 진전되지도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협상 결렬의 주요 원인은 '애플' 브랜드 사용 문제로 추정됨.
<https://bit.ly/3ammoPx>

현대차, 아이오닉 5 내부 공개 "공간활용 극대화" (아시아경제)

15일 현대자동차는 '아이오닉 5'의 내부 디자인 이미지와 주요 실내 사양을 최초 공개함. 내연 기관차의 구조적 한계였던 실내 터널 부를 없애고 SbW를 적용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임. 아이오닉 5는 23일 오후 4시 온라인으로 공개 예정.
<https://bit.ly/3pgyMow>

한국타이어, 올 하반기 롯데네시 공장 증설 추진 (파이낸셜뉴스)

한국타이어는 2023년 하반기에서 2024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 공장 2단계 증설에 착수. 올해 약 1000억원 규모를 투자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향후 순차적 투자할 계획. 완공 시 연간 생산량은 두 배(1100만 개)로 증가.
<https://bit.ly/2ZIMJ5>

생산차질...내수부진...외자계 완성차 3사 수난시대 (아이뉴스 24)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차, 한국지엠 등 국내에 생산라인을 갖고 있는 외자계 완성차 3사가 생산차질, 내수부진, 노조리스크 등으로 힘든 상황. 쌍용은 자율구조조정(ARS) 연장 신청을 고려 중이며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차는 내수 신장을 기대하기 힘들.
<https://bit.ly/2ZIWmf>

현대차 '통큰 결단'...전기차 '코나 7만7000대' 배터리 전량 교체 (전자신문)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코나 일렉트릭'의 배터리 전량 교체를 추진. 리콜 조치에도 최근 화재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면서 내린 고객 우호성 결단으로 해석되며, 국토교통부의 원인조사 발표에 따라 LG와의 비용분담 과정이 남아 있음.
<https://bit.ly/3pgDD9e>

폭스바겐 CEO '애플가 무섭지 않다...수소차 싸우고 효율적' (연립뉴스)

VW의 CEO 헤르베르트 디스는 애플의 전기차 생산 계획이 미칠 영향에 대해 별다른 우려를 하고 있지 않으며, 기후 목표는 순수한 전기자동차만 달성할 수 있고 자동차 연료로 수소를 쓰는 것은 너무 비싸고 비효율적이라고 언급함.
<https://bit.ly/3qsoR00>

친환경차 내수 판매 126.4% ↑...하이브리드·수소차가 견인 (ZDNet Korea)

친환경차 내수 판매량이 전년 대비 126% 증가했으며, 친환경차 수출액도 사상 최고 기록인 9억 달러를 돌파함. 이는 12개월 연속 증가세이며, 국산 하이브리드(그랜저·투싼·쏘렌토 하이브리드)와 수소전기차가 판매 호조세를 이룸.
<https://bit.ly/2Zzkj1>

2000만원대 중국산 테슬라 전기차 나오나 (디지털타임스)

테슬라가 중국에서 2000만원대 가격의 새 차종을 개발해 양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며, 테슬라는 이 기사의 내용을 즉각 부인함. 그러나 중국에서는 테슬라가 중국 고객들을 겨냥, 중국에서 새 차종을 개발 중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림.
<https://bit.ly/2LWyd5l>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